

# DDA 서비스 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천준호

## 1. 협상동향

### 가. 최근 서비스협상 동향

- 2001년 DDA 발족으로 협상 본격 개시
  - 서비스 협상은 농업과 함께 UR협상 기설정외의 하나로 DDA 협상의제 중 비농산물을 포함한 3대 시장접근협상 분야
  - 협상은 R/O(request/offer) 방식으로 진행
    - 12개 분야 160여개 세부업종을 대상으로 각국간 요청서(Request)와 양허안(Offer) 교환을 통한 협상 진행
- 2003.3월로 1차 양허안 제출시한이 설정된 이후 2005.5월로 2차 양허안 제출시한이 다시 설정되었으나 양허안 제출실적은 저조한 상태
  - 현재까지 제출된 양허안 수는 68개(EC 25개국 포함 92개국)
    - 32개 LDC 제외시, 양허안 미제출 국가는 24개국
    - 수정양허안은 25개(49개국) 제출
  - 1차 양허안 제출 국가수는 증가하였으나 제출된 양허안의 질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따라서 그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R/O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적 협상방식이 도입되어 협상의 재활성화 계기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브라질, ASEAN 등 개도국들의 강한 반대로 홍콩각료회의에서 보완적 협상방식은 채택되지 못함.
- '05.12.18 홍콩각료회의에서 양허안 개선 목표 및 복수적 R/O 협상방식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 문안 부속서(C) 채택
- 금년중 2월, 3월, 6월, 10월 4차례의 cluster회의 개최를 통해 홍콩 각료선언문에 따른 서비스협상 진행 예정

### [보완적 협상방식 논의경과]

- EC 등 주요 선진국들은 협상부진이 현재의 양자적 R/O 협상 방식의 근본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다자적, 복수적방식을 병행하는 보완적 협상방식을 채택할 것을 주장, 2005년 하반기부터

- 동 이슈가 서비스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
- 우리나라, EC, 미국, 일본, 대만,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등이 numerical target 설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다자적, 복수적 보완적 접근방식 제안
- 2005. 9.23 파리에서 개최된 EC, 미국, 인도, 브라질의 G-4 각료회담 결과 서비스협상 진전을 위한 Core-group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서비스 협상 활성화를 위한 다자적 접근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 ※ Core Group : 미국, 인도, 캐나다, EC,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이집트, 칠레, 아르헨티나
- 이후 10월말 홍콩각료선언문에 포함될 서비스 문안에 대한 1차 의장 초안제시이후 그간 이에대한 회원국간 문안조정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수량목표(numerical target)의 설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합의도출에 실패
- 이에따라 홍콩 각료회의전 numerical target 도입은 사실상 포기되었으며 대신 복수적 R/O도입에 콘센서스 형성
- 홍콩 각료회의시 G-90를 중심으로한 개도국의 반발로 제네바 프로세스를 통해 콘센서스가 형성된 복수적 R/O 또한 비구속적 성격으로 약화되어 채택

## 2. 홍콩각료회의의 서비스협상 결과 및 평가

### 가. 주요 내용

- 양허안 개선의 목표를 설정하는 세부 가이드라인 도입
  - 각 mode별 양허수준 목표 등
- 복수적 R/O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여 협상방식의 효율화 도모
- 향후 협상작업 일정 수립
  - R/O 양허 요청 : 2006.2월말
  - 제2차 수정 양허안 : 2006.7월말
  - 최종 양허안 : 2006.10월말

### 나. 평가

- 홍콩각료회의에서 서비스 부속서가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개도국들의 강한 반발로 보완적 접근방식의 핵심인 다자적 수량목표(numerical target)가 포함되지 못하였고, 복수적 R/O 협상방식 또한 자발적 성격으로 구속성이 약화되어 당초 선진국들이 추구했던 목표 수준에는 미달
- 그러나, 협상목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합의되고 복수적 R/O협상방식이 새로 도입되어 2월이후 복수적 R/O를중심으로한 본격적인 양허 협상이 시작될 전망
- GATS의 unfinished business인 규범 협상(ESM, 보조금, 정부조달) 경우 홍콩 각료회의시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금번 DDA협상에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보조금의 경우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향후 작업의 기초로 활용될 전망

- 단, 국내규제의 경우 현 협상 종료전까지 각료들이 채택할 수 있는 text를 개발할 것이 촉구됨으로써 국내규제 규범 제정을 위한 text협상이금년중 본격화될 전망

### 3. 우리나라 협상 동향

#### 가. 양허 요청서 제출 및 접수 현황

- 우리나라는 36개 국가에 대해 양허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5개국으로부터 양허요청서를 접수
  - 작년말 현재 35개국과 총 98회 양자협상 개최

#### 【양허요청서(request) 제출 및 접수 현황】

구분	상호제출	일방 제출/접수
우리가 제출 (36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체크,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23)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헝가리, 칠레, 이집트, 나이지리아, UAE,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13) - 우리만 위13개국에 제출
우리가 접수 (25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체크,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23)	파나마, 모리셔스(2) - 위 2개국만 우리에게 제출

- 양허요청서 제출
  - 제출국 선정 기준
    - 주요 서비스교역선진국 및 우리의 진출 가능성이 큰아주지역 개도국
    - 우리 관심심분야별 주요 진출 대상국가
  - 양허요청 선정기준
    - 시장의 향후 가능성 및 지리적 인접성 등을 감안하여 중국에 대해서는 12개 전 분야에서 요청서 제출
    - 우리의 개방정도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건설, 유통, 금융, 통신, 해운분야에서 다수 요청서 제출
- 양허요청서 접수
  - 각 회원국의 요청서는 WTO 분류상 12개 서비스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
    - 기존 미양허 분야에 대한 개방 요구
      - ↳ 법률, 보건, 의료, 교육, 우편송달 등

- 현재 부분적으로 양허된 분야의 양허대상 확대 및 기존제한 철폐 요청
  - ↳ 전문직 서비스(회계, 세무 등), 유통, 건설, 통신, 운송, 금융, 에너지 등

**나. 우리 양허안 제출 동향**

- 2003.3월 1차 양허안(Initial Offer) 제출
  - 법률, 교육, 국제배달(Courier) 등 26개 업종을 새로이 양허(총155개 세부업종중 104개 양허)
    -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등 분야는 기존의 양허내용을 개선
    - 시청각 중 영화상영 및 라디오·TV 방송, 보건의료, 뉴스제공업 등은 미양허
- 2005.5.31 2차 양허안(Revised offer) 제출
  - Mode 4 전문직 계약공급자 CSS(contractual service supplier) 중 10개 직종 양허

▶ 양허분야

- ① 기계설치·보수(건설·발전설비 제외)
- ② 기술자문(첨단과학분야)
- ③ 회계사(국내 회계법인 등에 대한 자문)
- ④ 건축사(국내 건축사와 협업조건)
- ⑤ 경영컨설팅
- ⑥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 ⑦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시행
- ⑧ 데이터 운영
- ⑨ 데이터 시스템
- ⑩ 자동차 설계

▶ 자격요건

- ① 외국 법인과 국내 법인간 이행기간 1년 이내의 서비스 공급 계약 체결
- ② 입국신청 전 동 법인에 1년이상 근무조건 및 체류기간을 1년내 계약기간으로 한정
- ③ 국내 관련 법령 및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학력, 전문자격 및 전문적 자격과 능력에 기초한 경력 소유
- ④ 자국(외국) 법인으로부터 보수 수령

※ 2차 양허안 전문을 외교통상부의 DDA 홈페이지  
(www.wtodda.net)에 게재하여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